



해외 리포트

그윽한 향수가 느껴지는 마스다(増田) 향 상가 거리

임준홍 _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올해는 일본이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따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制度)가 창설된지 40주년이다. 지금까지 문화청(文化庁)은 100개 이상의 전통적건축물보존지구를 지정하고, 일본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예로 일본 아키타현(秋田県) 요코테시(横手市)에는 옛 전통건축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스다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가 있다. 이 곳은 에도시대의 거리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국가가 인정한 보존지구이다. 아키타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로서, '마스다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에는 그 당시의 영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술 공장'과 '창고'가 아직까지 잘 유지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전통방식으로 술을 제조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그 당시의 부를 상징하는 많은 대규모 창고와 고층(3층)의 목조구조물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주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요코테시(横手市)에 기증하고, 시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거리 곳곳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과 의미 있는 공간들이 정비되어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마스다 '창고의 날' 축제를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는 역사적 건조물까지 특별히 공개되면서, 지역의 전통적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 ‘마스다 거리’ 전통건축물보존지구의 개요

일본에서도 주요 폭설지역인 아키타현 요코테시에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마스다 거리’가 있다. 이 ‘마스다 거리’는 요코테시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으로 우슈가도(羽州街道)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마을이다.

요코테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08호 지방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약 420m, 동서로 약 350m 정도 규모의 ‘마스다 거리’는 요코테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지구이며, 동시에 국가 주요 ‘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로 선정되었다¹⁾.

‘마스다 거리’의 건축물들은 바람과 폭설 등으로부터 건물 안쪽의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 ‘샤야(しゃや)’라는 구조가 안채를 뒤덮고 있는 형태로 눈이 많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유통·상업의 거점지역으로,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맞배처입(切妻造妻入)’형식의 건축물과 마을구획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각 건축물 부지의 폭은 5~7m, 깊이는 50~70m 사이로 좁고 긴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主屋) 뒤에 흙으로 만든 ‘내부창고(内蔵)’까지 긴 내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²⁾. 이러한 폭설지역의 특색과 함께 동북지방에서 몇 안 되는 상가의 거리 모습이 잘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3년 12월에 국가의 주요 ‘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로 선정되었다³⁾.

이 는 거리보존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제도’의 시행 이후 사례 중에서도 건물의 내부 구조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마스다 거리의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선정은 일본에서도 획기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국가 주요 전통건축물보존지구로 지정되기까지

‘마스다 거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마스다의 아침시장’을 시작으로 아키타번(秋田藩) 남부 유통의 거점으로서 번창하였다. 이러한 활력 있는 모습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앞담배의 집산지, 주조업(酒造業)의 생산지로도 발전하였고, 1895년에는 마스다 은행과 마스다 수력전기회사가 설립되는 등 많은 회사 조직이 설립되면서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역으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한편 마스다 거리의 ‘내부창고(内蔵)’가 전통건축물 자원으로 재발견되면서, 2000년대에 전통건축물과 연계한

1)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年3月2日閲覧

2)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3)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年3月2日閲覧



- 범위 : 아키타현(秋田県) 요코테시(横手市) 마스다마치(増田町), 마스다모토마치(増田字本町), 타마마치(字田町), 나카마치(字中町) 및 나노카마치(字七日町) 등의 일부
- 면적 : 약 10.6ha
- 선정일자 : 2013년 12월 27일
- 선정기준 : 전통건조물군 및 획지(地割) 등이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 전통적 건조물 및 환경 부동산의 특정 수 : 143건 (2013년 12월 27일 현재)
 - 전통 건조물 (건축물) - 119건 · 전통 건조물 (공작물) - 9건
 - 환경물건 - 13건
- 지정 · 등록문화재 (건조물)
 - 국가등록유형문화재 - 18건 40동 · 요코테시(横手市) 지정문화재 - 7개 10동

관광지화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01년에 사토요스케(佐藤養助商店)상점에 옷(漆) 창고자료관의 공개로 시작하여, 이듬해 2002년에는 히노마루양조(日の丸醸造)와 용구주조(勇駒酒造)가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내부창고(内蔵)'가 있는 거리는 마스다 지역의 특별한 자원으로 다시 인식되었다.

요코테시의 소유인 '관광물산센터'를 제외하고 마스다 거리의 건축물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거나 상점으로 영업 중이며, 소유자의 협력으로 현재 16개 동이 공개되고 있다.



| | |
|-------|---|
| 1999년 | 마스다거리 상공회가 中七日거리를 「くらしっロード」 라고 이름붙임 |
| 2001년 | 사케요스케 상점이 '옷창고자료관' 영업시작으로 내부창고(内蔵)를 공개함 |
| 2002년 | 마스다지역센터협의회 출범 |
| | 日の丸醸造(株)、勇駒酒造(株) 등록유형문화재 |
| 2003년 | 문화재협회에서 내장(内蔵) 조사·사진촬영함 |
| 2005년 | 1월 「増田の蔵(마스다의 창고)」 사진집 발간 |
| | 佐藤又六家が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 일반공개 시작 |
| 2006년 | 5월 「蔵の会」 발족 |
| | 11월 제1회 「蔵の日」 개최 |
| 2007년 | 10월 「増田の蔵」 사진집 2권 발간 |
| 2008년 | 「역사적건조물조사사업」 실시 |
| 2009년 | 中七日거리에 관광안내소(蔵の駅) 설치 |
| 2010년 | 전통적건조물군보존대책조사 시작 |
| | 7월 전통적건조물 연중 공개 시작 |
| | '蔵の日' 에서 리뉴얼, 실행위원회 주최로 주옥도 공개 |
| 2011년 | 구.이시다 리키치 취득 |
| | 11월 이시다이라 철물점, 리키치 공개 |
| 2013년 | 7월1일 요코테시 마스다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지정 |
| | 12월27일 국가 주요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 |

*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tokusetsu/masuda/01_history/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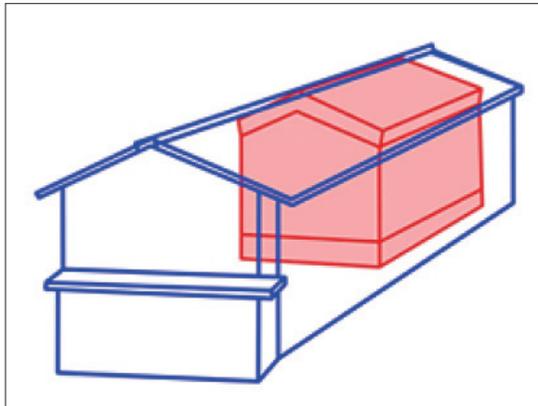
■ 마스다 거리의 특징 '내부창고'

마스다의 거리는 일본에서 '창고의 거리'로 알려진 구라시키시(오카타마현), 가와고에시(사이타마현), 기타카타시(후쿠시마현) 등과는 달리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창고는 몇 채에 불과하다. 상점가의 낮은 건물 안쪽에 화려한 '내부창고(内蔵)'가 숨어있는 것이 마스다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의 큰 특징이다. 즉, 마스다 지구의 마을구획은 거리에 접하면서, 직사각형모양(短冊状)의 부지가 나뉘져, 각 상점의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主屋)의 후면에 '내부창고(内蔵:うちぐら)'라는 홉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주인이 거주 공간(主屋)과 일체가 되도록 '사야(簾:さや)'가 창고를 같이 덮고 있어 외부에서 그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⁴⁾.

4)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년3월2일閲覧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主屋) 내부는 건물 남쪽을 통과하는 토방이 가로지르고, 입구에서 가게, 거실, 수옥(水屋) 등이 연결되어 토방과 접하고 마당 쪽으로 채광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옥(主屋)에는 용마루와 이어져 있는 높은 통풍구조가 건물 내부의 거대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고, 토방의 가장 안쪽에 창고(内蔵)를 배치하는 형태가 마스다 거리의 상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구조이다⁵⁾.

〈그림 1〉 내부창고의 입지모습



자료: <http://www.city.yokote.lg.jp>

〈그림 2〉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구.이시하라철물점)



자료: <http://www.city.yokote.lg.jp>

부지 내 건물의 배치는 거리에 접하는 측면에서부터 주인이 거주공간(主屋)-사야훙창고-정원의 순으로 올라가는 것이 많고, 정원은 ‘토구라(とぐら:외장)’라고 불리는 별도의 창고가 마련된 예도 많다. 또한 부지 뒷면이 골목길에 접하는 경우 대로에 접하고 문과 널판장(板塀)이 설치되어 있고, 각 건물들은 3개의 방향 즉, ‘큰길(表通り)’, ‘측면·골목 거리(側面・路地通り)’, ‘골목길(裏通り)’에서 서로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⁶⁾.

한편, 거리와 접하는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主屋)은 맞배지붕의 처마가 들어간 것이 많고, 박공장식으로는 화장양이나 화장술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 거대한 양수(梁首)를 내밀고 있어 그 모습이 마치 사찰건물을 연상시킨다.

또한 2층 창문에는 ‘안대가리개(霧除け)’라는 작은 차양을 내고, 전통 서까래와 부채 서까래 ‘두채(ふたのき)’ 등 장식성 높은 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박공의 ‘뿔(루우)’는 한 칸 남짓으로 매우 깊어 건물의 음영을 만들어 주지만, 처마는 한 척에서 두 척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구조는 아키타현 상가 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도 주요 폭설 지역인 마스다에서 특히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5)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년 3월 2일閲覧

6)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년 3월 2일閲覧



〈그림 3〉 마스다 거리 상가 건물의 특징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

이러한 창고의 구조는 느티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의 좋은 목재를 사용하였고, 들보는 거둑 대들보와 일본 집에 흔히 이용되는 트러스구조까지 연대별로 다양한 건축기법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건물의 용도는 물품이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문고창고'와 당주나 가족의 사적공간으로 사용되는 '다다미창고(座敷蔵)'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문고창고는 전부 마루로 되어 있고, 다다미창고는 1층의 안쪽은 다다미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는 다시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마스가 거리에는 다다미창고로 사용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문고창고도 사용된 건물도 다시 다다미창고로 개조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 마스다 거리의 주요 전통건조물 모습



구. (주)용구주조 (국가등록유형문화재)



구. (주)용구주조 (국가등록유형문화재)

*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

7) <http://www.city.yokote.lg.jp>

〈그림 5〉 마스다 거리의 주요 전통건조물 모습



사토 '又六家' (국가등록유형문화재)



사토 '三十郎家' (국가등록유형문화재)

*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

〈그림 6〉 마스다 거리의 주요 전통건조물 모습



(주)히노마루양조 (국가등록유형문화재)

■ 지역민이 함께하는 '마스다 거리'

▶ 마스다 거리 관광센터 '蔵の駅(곳간의 역)'

마스다 관광물산센터(관광센터) "蔵の駅(곳간의 역)"은 과거 마스다 나카마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이시다가(石田家)씨가 요코테시에 기증한 가옥을 관광센터로 시설을 정비하여 마스다거리관광협회(増田町観光協会)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⁸⁾. 관광센터는 마스다 거리의 관광안내 외, 이 곳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나 마스다 거리와 관련한

8) <http://masudakanko.com/uchigura/>



서적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 건물의 내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마스다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의 상가건물의 전형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스다 거리의 전형적인 조형이 되는 기다란 장방형 방식의 건물 모양은 부지의 남쪽에는 '통로(通り)'를 만들고, '가게', '객실', '거실', '수옥(水屋)', '내부창고(内蔵)'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뒤쪽에 있는 '내부창고(内蔵)'의 공간 내부까지 공개되고 있다⁹⁾.

〈그림 7〉 마스다 거리의 관광센터



관광물산센터 '蔵の駅' 관관안내소 전경



관광물산센터 '蔵の駅' 판매대



관광물산센터 '蔵の駅' 내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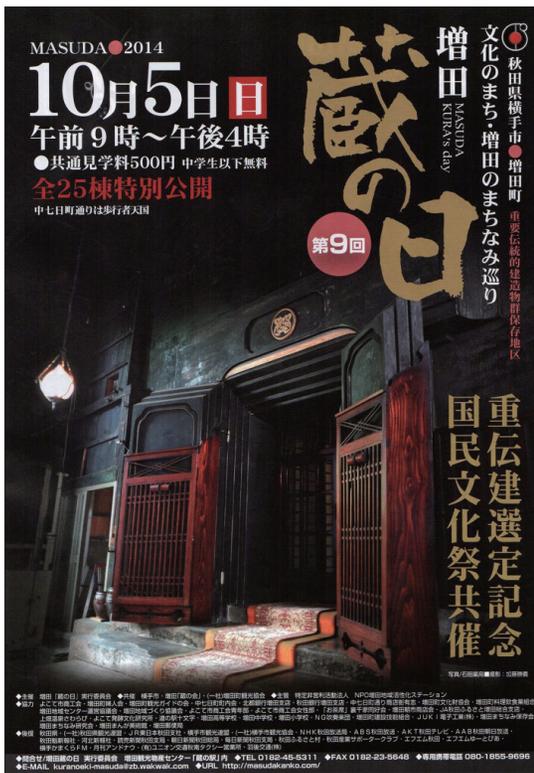


관광물산센터 '蔵の駅' 내부 전경

9) <http://masudakanko.com/uchigura/>

▶ 마스다 거리 축제 '창고의 날'

<그림 8> 축제 포스터



<그림 9> 마스다 거리 안내도



마스다 거리의 전통건축물군보존지구 안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5년에 '마스다 창고'라는 사진집이 발간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해 내부창고(内蔵)를 가진 주택을 특별히 공개하는 '창고의 날' 축제의 기반을 만들어주었으며, 2006년에는 '蔵の会'라는 주민조직이 발족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요코테시의 행정에도 영향을 주면서 2009년에는 마스다관광물산센터 '창고의 역(蔵の駅)'이 개설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매년 10월에는 마스다 지역의 창고가 공개되는 축제가 지역의 각종 이벤트와 지역 특산물 판매와도 연계되어 개최되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의 전통적 마을의 모습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통적 구조물군 보존지구제도가 있다. 올해로 이 제



도가 도입 된지 4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100곳 이상이 지구로 지정되었다. 1년에 2~3곳 정도의 지정이지만 이를 통해 일본다운 마을경관 형성은 물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역사를 매개로 한 마을만들기로 발전하면서, 지역축제와의 연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례로 설명한 아키타현 요코테시의 '마스다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로써의 명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술공장과 술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그리고 '내부창고' 독특한 건축물의 특징을 살려 마케팅하고 있다. 또한, 전통건축물의 소유자가 마을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관광객에게 개방함으로써 관광 및 지역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코테시는 이곳에 마스다거리관광협회와 '마스다 창고'라는 사진집 발간, 축제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민과 하나 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서 역사와 문화와 연계한 마을만들기·도시재생과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참고자료〉

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2014年3月2日閲覧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http://www.city.yokote.lg.jp/>
<http://masudakanko.com/uchigura/>

* 본 글은 2015년 충남연구원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